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8월 뉴스레터 vol. 78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 비우고 그 사이에

징례후기 작고 아름다운 아빠의 장례식

숫자로 보는 채비 우리 국민이 죽음 후 가장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정'!

채비학교 기쁜 숨 명상 작은모임 참여자 모집

그 사이에



사진 출처: SBS

‘사이’는 ‘조금 떨어진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비교적 짧은 동안’을 뜻한다. 내게 이 말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 날이 있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행사 때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 토론 끝에 혼성 4중창을하기로 하였다. 우리 넷 중 둘은 어느 정도 잘 불렀지만, 나와 다른 친구는 겨우 박자와 음정을 따라가는 수준이었다.

그때 선정된 곡이 ‘Let it be me’와 ‘그 사이’였다. ‘Let it be me’는 애벌리 브라더스가 불러 히트한 곡이고 ‘그 사이’는 김민기가 만들고 부른 서정적인 노래다.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꿰고 있던 친구가 선곡했다. 어설프게나마 각자 화음 파트를 나누고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됐고, 우리 순서가 와서 정신없이 무대에 올라 두 곡을 불렀다. 어떻게 무대를 내려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도 박수를 받았던 것 같다.

어두웠던 사춘기 시절, 어렵사리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을 구해 밤새 들었다. ‘아악’하는 비명으로 시작되는 그 노래들.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노래극이라는 장르는 생소했고, 낡은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하나같이 아프고 처절했다. ‘공장의 불빛’과 ‘이 세상 어딘가에’의 몇 구절은 지금도 생각한다. 그 테이프는 한국도시산업선교협의회와 김민기가 제작해 배포한 녹음테이프의 복사본이었다. 나는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다.

김민기는 외로운 내 인생 굵이굵이마다 위로와 힘을 주었다. 나는 학전소극장에서 ‘지하철 1호선’ 공연을 세 번 보았다. 아마 지치고 힘들 때였을 것이다. 그때 보았을 배우들은 지금 영화와 드라마, 음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공연은 아이들과 함께 보았다. 내가 느꼈을 감동을 아이들도 느끼길 바랐다. 공연을 본 며칠 후 아이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김민기 2집에 수록된 ‘그 사이’는 서정적이고 따뜻하고 아련하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 시선은 어느새 어딘가 먼 곳을 향하게 된다. 밤과 낮 그 사이, 이만치 떨어져 바라볼 그 사이, 이리로 또 저리로 비껴가는 그 사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 삶과 죽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그 속에 우리가 머문다. 나는 그 풍경이 슬프도록 아름답다.

사이는 시작과 끝의 시간을 말한다. 끝과 시작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이는 또 아래와 위, 위와 아래에도 존재한다.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이 사이이다. 나는 지금 어느 사이에 있을까. 스무 살 시절부터 품어온 질문은 풀 길이 없다. 그저 해 저무는 들녘을 바로 보며 어딘가를 꿈꾸고 있을 뿐. 어쩌면 인생이란 위태롭고 불안한 시간의 연속이 아닐까.

김민기는 ‘노을 저 건너에 별들의 노랫소리 밤새도록 들리는 그곳에 가련다’고 노래했다.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내 마음속 김민기는 영원히 살아 있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작고 아름다운 아빠의 장례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아빠가 서둘러 떠나셨지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채비 작은장례식으로 의견은 모아진 상태였다. 병원으로부터 아빠 사망선고를 받고 바로 채비장례에 전화하여 장례지도사를 지정받았다.

작은장례식은 공간채비에서 치르기로 했고, 장례지도사는 아빠가 장례 3일 동안 계실 무빈소 영안실을 알아봐 주는 것을 시작으로 입관 발인 화장 장지 선정까지의 모든 절차를 우리와 상의 결정하여 진행해주었다. 하루 동안의 빈소를 차리고 추모식 없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자유롭게 조문객을 맞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추모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추모 형태의 장례식이었으므로 조문보를 쓰고 생전의 사진과 영상을 준비하며 전시할 유품을 챙겼다. 장례식 12시쯤 공간채비에 도착하니, 조문보를 필두로 생전 건강하셨을 때의 사진과 병원에서 찍은 영상들이 대형 스크린에 흐르고 있었다. 우리 평소에 사진을 가족끼리 공유해 두었고 병원 게시는 내내 동영상 많이 찍어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를 알려주면 장례식 내니 BGM으로 틀어놓는다고 해서 아빠가 좋아하시던 포르테디콰트로의 노래를 요청했는데, 공간채비에 들어서니 포르테디콰트로의 노래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채비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빠가 좋아하는지도 몰랐을 노래이다.

고인의 유품을 전시하는 '메모리얼테이블'을 위해 아빠가 찍은 사진, 붓글씨 액자와 긴 세월 써 오신 일기를 이보다 소중한 유품은 없으리라.

작은 장례식에서는 상복도 필수가 아니고 화환도 금지이다. 제사상도 차리지 않고 향도 초도 없다. 식사와 술도 없고 간단한 다과만 준비한다. 조문객을 맞는 것 이상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례식이다. 일회용품 하나 없는 친환경 장례식이다.

채비 작은장례식에서는 방명록만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얼포스트’라고 추모글 쓸 기회도 주었는데, 부담스러워 안 쓰는 분도 계셨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아빠를 생각하며 글 써준 분들이 많이 계셨다. 추모의 글은 장례식 내내 추모의 나무에 걸어두었다가 조문보와 함께 입관할 때 넣어드렸다. 아빠 다 읽으셨지요?

작은 장례식이고 50명 이내만 참석하는 가족장이라는 것 때문에 부고를 아주 제한적으로 알렸다. 가족이 아닌 가까운 지인에게 알리면서 가족장이므로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장이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셨다는 분도 계셨고 가족 같은 사이니까 꼭 가야 된다면 굳이 오신 분도 계셨다.

지내고 난 후의 내 생각은 이렇다.가족장으로 할 거라면 가족 친지 외에 아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추모식 1시간 하는 켜 작은장례식을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같은 형식의 작은 장례식이라면 굳이 가족장이라 이름 붙일 필요 없이 가까운 지인에게 까지는 알리되 오시라 마시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공간채비가 일반 장례식장에 비하면 앉을 자리가 적은 편이지만 조문 와서 내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100명 정도 조문객을 맞는데 무리가 따르진 않을 것 같았다. 부담될까 오시지 말라 했던 분들이 조문 와주시니 그렇게 반갑고 위로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던가 보다.

작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하루 종일 수많은 갈등이 없을 수 없었고 또 친척 어른들께 한소리 들을 각오도 했으나 무엇보다 조문객 맞이에 집중되는 행사보다 아빠를 추모하는 시간이길 바랐다. 작은 몸짓이나마 장례문화를 바꾸는데 동참하고 아빠와의 이별이 조금은 의미 있고 특별했으면 했다.

그런데 웬걸!

어르신들이 작은장례식을 더 좋아하시고 잘했다 얘기해 주시고 심지어 연락처 알려달라는 분들도 꽤 계셨다. 그날 많이 편찮으셔서 오지 못하신 율 엄마, 손녀딸의 페이스톡 연결을 통해 보시고는 너희 아빠가 많이 좋아하셨겠다고 총평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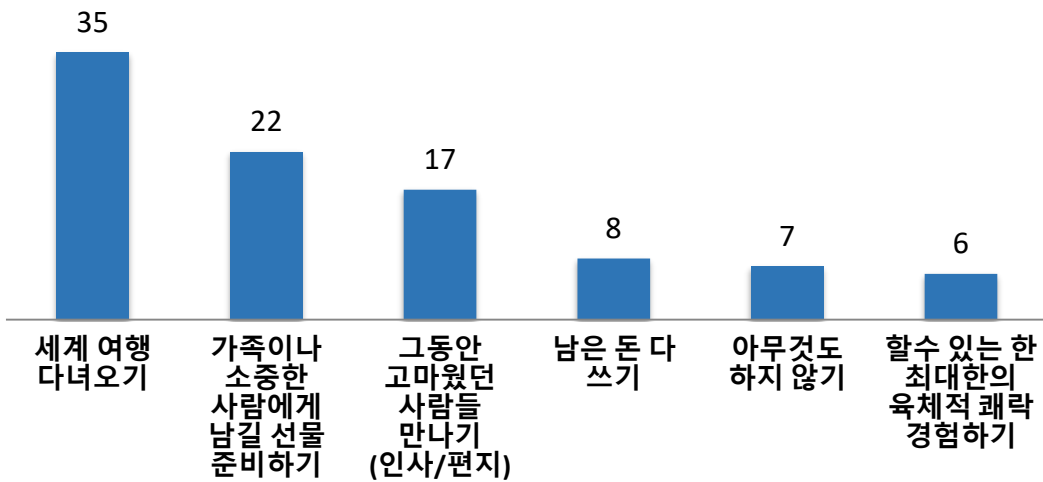
더 무슨 말이 필요하리오! ✨

OOO 조합원

1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죽기 전에 세계 여행 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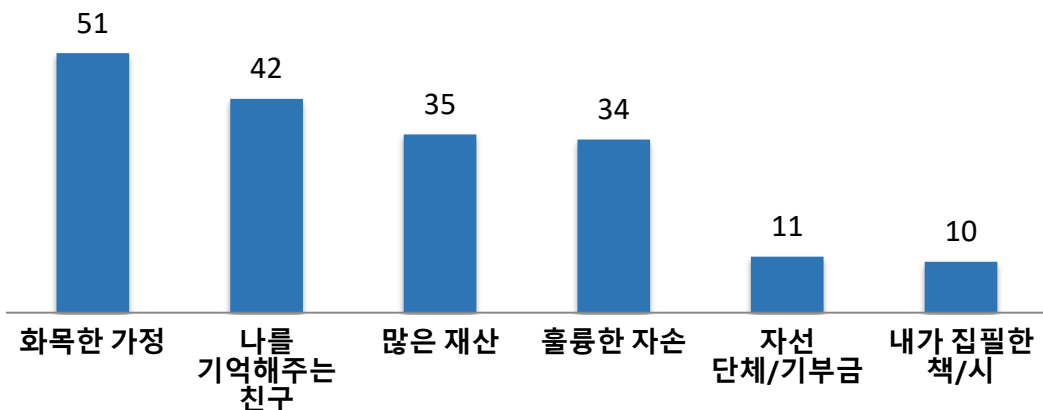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일반 국민, 상위 6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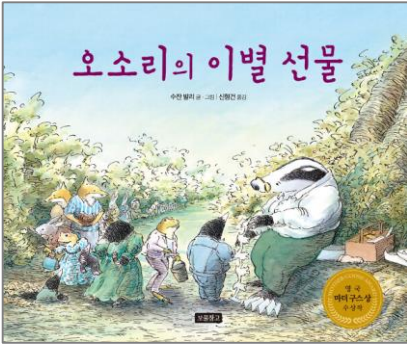
죽음 후 남기고 싶은 것
죽음 후 가장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정’!

죽음 후 남기고 싶은 것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6위, %)



*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우리가 두고 갈 것들



오소리의 이별 선물

수잔 발리 | 보물창고

오소리의 선물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세밀하고 따뜻한 그림과 어우러진 훈훈한 이야기는 책을 덮었을 때 오히려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오소리의 마지막 꿈으로 묘사된 죽음의 과정은 마치 구속된 몸을 벗어나 영혼이 자유로워짐을 보여 준다.

오소리의 선물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세밀하고 따뜻한 그림과 어우러진 훈훈한 이야기는 책을 덮었을 때 오히려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오소리의 마지막 꿈으로 묘사된 죽음의 과정은 마치 구속된 몸을 벗어나 영혼이 자유로워짐을 보여 준다.

오소리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와주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믿고 의지했다. 오소리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오소리는 자신이 죽었을 때,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 걱정했다. 늦은 밤 커튼을 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서 흔들의자에 앉아 잠들었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터널을 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소리네 집 앞에 모인 친구들은 오소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은 모두 큰 슬픔에 빠졌다. 친구들은 때때로 한데 모여서 오소리가 살아 있었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오소리는 두더지에게 종이를 오려 두더지 모양의 사슬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었고, 여우에겐 벅타이 매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며, 토끼 부인에겐 자신만의 요리법을 알려 주었다. 오소리가 준 이 선물은 다른 이에게 전해질 때마다 더욱 특별해졌다.

따스한 어느 봄날, 두더지는 오소리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언덕을 걸으며 오소리에게 이별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두더지는 오소리가 들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아마도…… 오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떠나고 나서 남겨진 친구들의 슬픔을 걱정하는 오소리의 모습에서 '죽음'이 떠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몫임을 알 수 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 친구들은 한데 모여 오소리가 소중하고 값진 보물을 이별 선물로 남기고 간 것을 깨닫는다.

이렇듯 '죽음'이 어느 한 생명을 단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기고 떠나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꼭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님을, 어쩌면 특별한 선물을 남기고 떠나 '다른 이에게 전해질 때마다 더욱 특별'해져 빛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작은모임 지원사업] 기쁜 숨 명상

호흡 근육, 마음 근육을 풀어주어 몸과 마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명상 강좌를 진행합니다. 자신의 호흡 알기,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호흡의 중요성을 통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 호흡의 이완을 위한 움직임 명상, 소리명상, 호흡 명상, 마음관찰 명상 등 다양한 명상방법 익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강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며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익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교육 소개

- 대상: 조합원, 비조합원 등
- 일정: 2024년 9월 5일(목), 9월 19일(목) 오후 2시~4시(총2회)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0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참가 비용: 5천원
- 준비물: 간편한 복장
- 신청: <https://forms.gle/TxG9aN3SUSCET7Mh9>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차수	주제	내용	강의 날짜
1차	몸숨맘 이완명상	- 명상과 호흡의 이해 - 몸과 호흡의 길을 열어주는 기공명상 - 호흡을 통한 마음챙김 명상	9/5(목) 오후 2~4시
2차	관찰·자각·새로운 발견	- 소리를 이용한 알아차림 명상 - 소리 파장과 함께하는 이완과 휴식	9/19(목) 오후 2~4시

■ 강사

김하정

- 아이안요가명상 원장
- 요가,싱잉볼 테라피 지도자

2024년 7월

박철우 조합원 빙부상
최현임 조합원 시부상
홍윤기 조합원 부친상
백운성 조합원 모친상
김동환 조합원 부친상
장이정수 조합원 본인상

변경미 조합원 모친상
이병학 조합원 백부상
권혁수 조합원 부친상
이현정 조합원 부친상
장진숙 조합원 모친상
최소영 조합원 부친상

김영희 조합원 모친상
이재익 조합원 빙모상
설윤정 조합원 부친상
정영순 조합원 모친상
송광섭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2024년 6월

조익현 조합원 매제상
김혜정 조합원 배우자상
송세명 조합원 모친상
송정은 조합원 부친상
김동웅 조합원 부친상
권양희 조합원 부친상

박은 조합원 모친상
이영희 조합원 모친상
주은광 조합원 사돈상
유나영 조합원 부친상
박중호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원대희 조합원 배우자상
이창영 조합원 부친상
김선 조합원 배우자상
최태흥 조합원 모친상
배명옥 조합원 시모상
오가원 조합원 부친상

2024년 5월

김원홍 조합원 장모상
진재용 조합원 장인상
이복희 조합원 시모상
김광선 조합원 빙부상
이진한 조합원 장모상

김은경 조합원 부친상
이영석 조합원 조모상
나장균 조합원 모친상
권귀순 조합원 본인상
배현지 조합원 시부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문호 조합원 모친상
문숙희 조합원 모친상
김영숙 조합원 조카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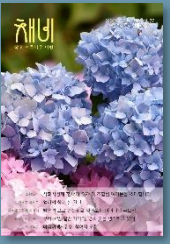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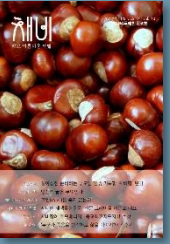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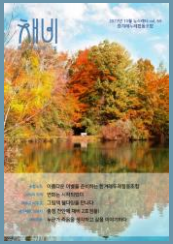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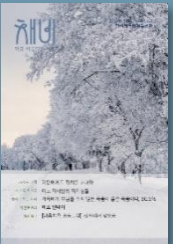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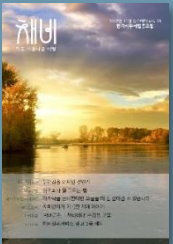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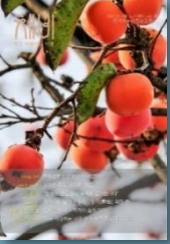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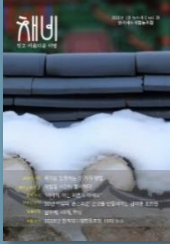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